

아무도 몰랐던 **물레발** 발명이야기

권이어의 고무유화법

글·그림 : 김민재

여러분은 '권이어'를 아십니까?

아. 어떤말이시
거 아예~ 뭔가 이름이
특수때~

권이어~글!



그렇다면 어떻게 권이어란 이름을
들고서도 이름은 뭐가? 딱 타이머 하듯
정해 상관없는 사람일까? 그렇지 않아.
권이어는 일종의 고무로 만들어지는
'고무유화법'의 창시자이다.

기후의 섭리는 여름이면 쉼없이
복이 들어오고 겨울이면 여파하하하
권이 갈라진단 말이야~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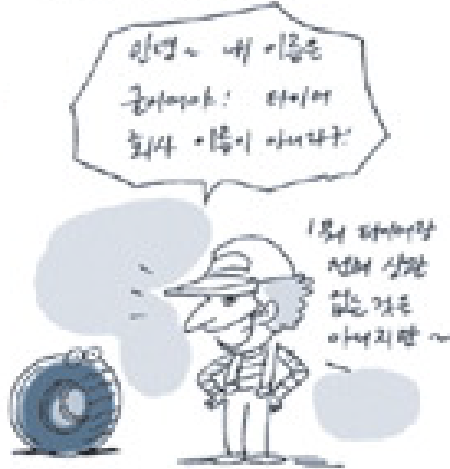


아니 그 글말고!

'권이어'는 미국의 한 교육공장에서
일하는 직공이었다.

만약~ 내 이름은
권이어야! 타이머
회사 이름이 아니냐!

1위 타이머
선해 상관
없는 것은
아예리만~



얼마후 권이어는 자신이 타이머
공장을 고민하고 스스로 조그만
공장을 하나 세웠다.
그는 아내를 포함하여 다섯명의
직공을 거느리고 교육생활 시작했고
고무에 관한 연구도 했다.

뭔가 근방적인
해결책이...

자네, 모든
고무-이제고!

고무 2차
중!!



교육연구에 관한 세현이 2년이 넘어갈 즈음 어느날 밤에 꿈에서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. 꿈의 내용인 즉슨 교무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그의 테레볼 서랍장에서 유탄가죽을 보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는...

음~ 이 유탄가죽라 장미 지은 생리주머니를 섞어볼까!



다음날 아침 준비하는 꿈에서 정정현대도 실험에 착수하였고, 결과는 꿈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성공이었다.



꿈에서도 그는 실험에 착수 하였다. 그는 그것들을 잘 숙용후 햇빛에 놓아두었더니 점차 질 좋은 고무로 변하는 것이었다.

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다.



이렇게 준비하는 고무의 물성 성질을 개선시켜 실용가치가 훌륭한 고무를 만든 세계적 발명가가 될수 있었고 우리는 그의 멋진 결과는 고무는 사용할수 있게 된 것이다.

